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415번> 사랑이 없으면	<가톨릭 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가톨릭 성가 188번> 천사의 양식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되게 하소서

제 1독서 | 열왕기 상권 19,9.11-13

화답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 2독서 | 로마서 9,1-5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4,22-33

프란치스코 교황님 복음 해설 |

“신앙이 있다는 것은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온유한 사랑으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려 하였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죽음을 건너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주님! 주님!" 하고 외치며,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 저와 함께 계셨군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2020년 8월 9일)

<오늘의 독서 및 복음>

제 1독서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9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겹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복음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의 시(詩)

이슬의 꿈

- 정호승

이슬은 사라지는 게 꿈이 아니다
이슬은 사라지기를 꿈꾸지 않는다
이슬은 햇살과 한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슬이 햇살과 한몸이 된 것을
사람들은 이슬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나는 한때 이슬을 풀잎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새벽별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슬은 울지 않는다
햇살과 한 몸을 이루는 기쁨만 있을 뿐
이슬에게는 슬픔이 없다



루카 복음 15장에는 되찾은 양과 되찾은 은전, 그리고 되찾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되찾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은 마태오 복음에도 나오지만, 다른 두 비유는 루카 복음에만 들어 있는 고유한 부분입니다. 특히 되찾은 아들에 대한 말씀은 루카 복음이 보여 주는 하느님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에서는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루카 15,4)라는 구절이 걸림돌이 됩니다. 아흔아홉 마리를 목자 없이 내버려 둔 채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오히려 그 아흔아홉 마리 가운데 여러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를 구하자고 여러 마리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언제나 큰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인간의 눈에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부당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충실하게 살았던 큰아들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15,29) 없는데, 재산을 들어먹은 작은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복음을 읽으면서 자신이 큰아들의 위치에 있다고 느낍니다. 스스로 아버지만 큼 관대하고 자비롭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충실한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쉽게 확인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 흔히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잘못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하지도 않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도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지요. 특히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4,18). 큰아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캐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19,10)고 하십니다. 자캐오는 하늘 나라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하늘 나라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도 루카 복음에 고유한 부분이지요(18,9-14).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사이는 정말로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십일조를 바쳤지만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18,14).

되찾은 양의 비유를 기쁘게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이고 잃었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루카 복음은 나를 위하여 선포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되찾은 양의 비유 (루카 15, 1-7)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

공지 사항

1. 간식 나눔 안내

다음주 주일 미사(8월 16일) 후에는 교육관에서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3. 새로운 미사 전례곡 연습

지난 사순 시기 이후, 매일 첫째 주에는 그레고리오 라틴어 성가를 미사 전례곡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성가는 내년 사순 시기에 맞추어 다시 연습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새로운 미사곡을 연습하여 부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미사곡은 신상옥 안드레아 작곡의 미사곡입니다 (복음 환호송은 유승헌 바오로 미사곡) 성가대와 반주자분들의 연습 이후 9월 초~중순경부터 함께 부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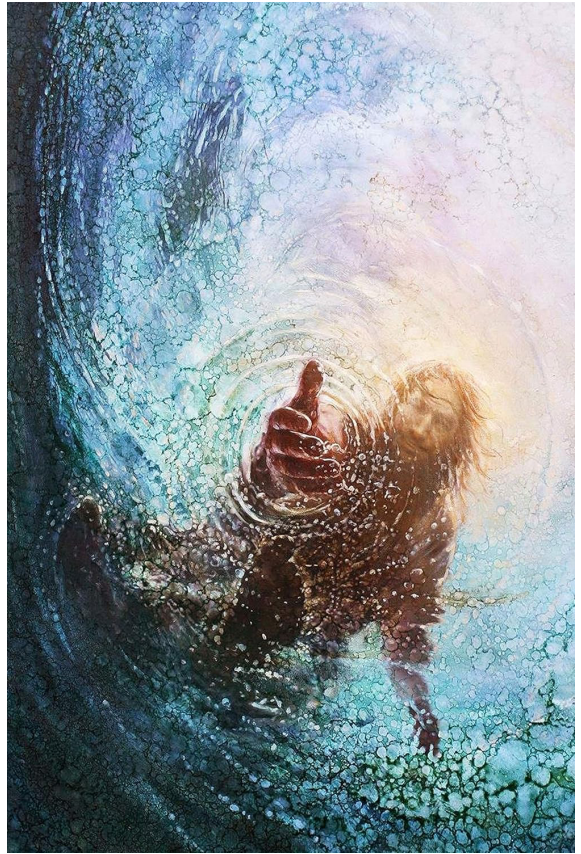
아래 QR코드를 통해 유튜브에서 미리 들어보시면 새 미사곡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상옥 미사곡



복음환호송



김용성 - The Hand of God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8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 최원미 클라라 (8.11) * 이민정 글라라 (8.11)
- * 최은희 헬레나 (8.18) * 임채숙 마리아 (8.15)
- * 강하니 스텔라 (8.15) * 정루이 루이스 (8.25)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 <도시 복음화>

익명성과 고독이 만연한 대도시에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봉헌금 & 교무금 | (8월 1일 ~ 8월 7일)

봉헌금	\$ 229			
교무금	\$ 879			
구민식	김천주	남궁영근	서미숙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전인철
정은영	최현주	황병욱	허준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8월 공동체 실천 |

세상을 떠난 이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주모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바치기.